

##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활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구혜령(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서울대 강사)

김선미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 전공 교수)

송혜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교수)

이승미 (우석대학교 가정복지학 전공 교수)

### I. 서론

: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의 extension service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과 실천

본 원고에서는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교육의 범주를 뛰어넘어 그들의 활동영역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며, 연구대상이 되는 가정과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자원관리학이라는 독자적 학문분야가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실천성을 확보한 학문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한 노력의 한 사례인데,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의 활동과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홈페이지가 그것이다.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은 그 동안도 부단히 학문적 정체성을 고민해 왔고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는가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관리과정이라는 연구대상의 추상성과 통합성은 한 편으로는 가정생활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가정학(생활과학)에 대해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전문화, 분과되어 가는 대학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가시화 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취업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심해야 했으며 실천학문으로서의 의미를 과연 갖고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외부적 도전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구혜령·조영희, 2000).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자들은 연구범주의 확장과 적용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이 1990년대 초반 공공가정경영에 대한 관심을

공유함으로써 공공가정경영의 연구와 교육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점, 최근 재택근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 점 그리고 가정생활관리문화론(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본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정철학, 가정생활설계 등 현 시점에 상당히 필요하며 또 가정자원관리학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들도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앞으로도 부단히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은 관점과 관심을 공유하며 자원을 조직화하여 21세기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실제 가정생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지향성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은 우리 관련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현대 사회현상에 대한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산업화, 전문화로 대표되는 현대의 사회는 사적인 영역인 가정생활에 비하여 공적인 영역, 즉 사회생활(직장생활)의 비중이 매우 크며, 가정생활의 주체성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재생산에 비하여 생산의 가치는 보다 크게 여겨지며,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관심보다 임금노동에 대한 관심도 더 크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가정생활은 삶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며 공적인 생활세계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따라서 가정경영, 가족지향성 등이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갖는 중요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에 대한 강연에서 가정학자 v.Schweitzer 교수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가정학이 마음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말로 가정학의 사회적 사명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v.Schweitzer,1999). 통계도 그것을 제시하거니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가정생활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정생활의 위기가 증가되는 만큼 가정생활 연구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활성화된 연구의 결과는 또다시 가정생활의 문제해결과 질적 향상에 피드백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도 끊임없이 실제 가정생활에 유익한 연구는 어떤 것이며, 우리의 연구결과를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적용할 지에 관한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의 자기성찰과 대안모색의 과정 속에서 설립된 단체이다. 결국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의 사회적 기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연구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연결되어야 함은 필수적이기 때문에(참고:박명희,

2000)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연구자들은 우리 연구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를 통한 연구자들의 활동은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extension service를 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것이다.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는 관리과정이라는 연구대상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리의 주체자, 즉 관리자에 초점을 두어 주부를 중심에 두고, 주부를 통하여 가정생활의 실제 모습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주부만이 가정생활을 관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부를 통하여 가정생활을 연구하고 적용할 때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의 표현이며, 궁극적으로는 가정자원관리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가정생활의 개별 주체들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송혜팀, 2000).

또한 주부는 기존의 여성관련 학문분야에서는 상당부분 주변적 위치를 차지해 왔던 연구대상이다. 여성 개인의 인권 차원이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의 여성, 즉 주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더욱 복잡한 연구관점과 방법, 이론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가부장제와 남녀평등, 여성해방주의 이론에 더하여 가족관계, 가정복지, 매일의 일상적인 의식주생활, 가정경영에 대한 체계적 접근, 가사노동 등과 같은 지극히 가정학적 내용들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학 분야에서 주부를 연구의 주체로 삼는 것 역시 당연하다. 그런데도 기존의 가정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기능적인 입장에서 주부에 관해 연구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회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는 주부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가정생활에 보다 통합적으로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 II. 본론

### 1.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의 설립과정과 활동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는 1999년에 설립되었는데, 단체의 조직은 소장 아래 기획팀, 교육연구팀, 사업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있다. 각 팀에는 연구원들이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을 비롯한 연구소의 제반활동은 순수하게 연구소 운영위원(팀장)과

연구원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업주부를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 혹은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조언 뿐 아니라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소는 연구자 그리고 연구대상인 가정생활의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 현장이며 전달체계이다. 우리는 이 연구소활동을 통하여 우선은 주부들과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주부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다 명확히 그려내고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주부들을 통하여 획득된 정보는 연구자의 연구에서, 상담에서 그리고 집필활동 등에서 반영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또다시 가정생활에 적용됨으로써 연구소를 통하여 매우 활발한 쌍방향관계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 동안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부패널토론회

<이 땅에서 주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주제로 4명의 전업주부패널과 관련자, 참가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초대된 전업주부들이 주부로 살면서 느끼는 정체성의 위기와 그 극복 또는 미해결의 과제들에 대해 토론하였다<sup>1)</sup>.

이어 11월 23일에는 <전업주부 취업주부 서로 알기 힘 모으기>라는 주제로 제 2회 주부패널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 2) 국제 학술심포지움

<주부, 가족, 사회> 라는 주제로 한국사회 주부의 생활실태와 문제, 전망에 대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1. 한국사회에서의 주부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모색
2. 주부와 국가 : 재생산행동, 국가의 통제와 성비문제 (Jubu vs. the State : Reproductive Behavior, State Control, and the Question of the Sex Ratio)
3. 가족에 대한 봉사 그리고 국가에 대한 봉사 (Serving the Family, Serving the Nation: State, Gender, and the Housewife in South Korea's National development)

라는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주부연구의 과제를 어떻게 하면 가족뿐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거시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

1) 제 1회패널토론회 자료는 [www.jubu21.or.kr](http://www.jubu21.or.kr)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음.

해 보았다<sup>2)</sup>.

### 3)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사이트 상에 <www.jubu21.or.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 4) 대중매체 기고 및 강연

연구소 연구원들이 신문의 생활분야나 가정 및 주부란, 또는 주부관련 대중잡지에 기고하는 것은 물론이며 라디오와 TV를 통해서도 주부를 다루는 혹은 주부를 청취자나 시청자로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0월부터 방영되고 있는 EBS의 '프로주부특강'에서는 본 연구소가 자문을 맡고 있는 바, 연구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가사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보수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저지할 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의 재조직화에 있어서 남녀 평등의 문제를 내면화하고, 주부의 시야를 사회주부 - 부역에서 세상을 보다 - 의 시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 2. 홈페이지 운영사례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는 비영리 사이트로서 or.kr을 주소로 달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조회수가 5개월만에 22,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 1)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과 내용

인터넷 사이트의 메뉴는 7개를 초과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개발원칙에 따라 원래 본 홈페이지의 메뉴는 연구소 소개, 자유게시판, 뜨거운 감자, 사이버강의, 사이버생활상담, 생활 속의 이야기, 주연생각 등 7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자료실과 동아리방이 증가되어 현재 9개의 메뉴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

2) 제1회 국제학술대회 자료는 www.jubu21.or.kr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음.

주요메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뜨거운 감자

가정생활과 관련되어 hot issue가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주부들의 견해를 올리고 주부들 간의 찬반토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선정되는 주제는 때로는 시기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주부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 ① 취업주부의 아이 키우기 (5-6월) - <잘 만난 대리모 엄마노릇 톡톡>  
<아이는 사회가 책임져야> <여성부 신설과 보육시설>
- ② 고부관계(7월) - <시어머니 당신도 딸 아니우> <친정엄마가 딸에게 부탁> <공주딸과 부엌데기 며느리>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 ③ 남편의 가사노동참여(7월) -<힘없는 남편의 넋두리><남편의 행주치마> <때론 남편도 기회가 필요하다> <돈벌면 통뼈> <누구나 당연한 가사노동>
- ④ 휴가와 주부, 휴가와 남편(8월) - <나만의 휴가가기> <놀러만 가면 꼭 싸우는 시집식구> <시부모와 함께 휴가 안 가려고 기를 쓰다> <모든 주제는 '시'자로 통한다?> <누굴 위한 휴가?>
- ⑤ 명절과 주부(9월) -<해마다 1월이면 달력을 펴봅니다> <눈치로 산 지난 세월> <명절에 이혼을 생각한다> <목숨 거는 귀향길 언론도 밟다>
- ⑥ 인터넷과 생활의 변화 (9월) -<바둑만 하는 남편> <인터넷 과신 말자> <인터넷 만능은 아니죠>
- ⑦ 친정어머니와의 관계 (10월) - <내가 결혼하면 우리 엄마는> <친정과 가까이 살 때> <나는 엄마를 닮아가고 있다>

(2) 사이버강의

가정생활의 통합성 그리고 가정자원관리학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주부론 (2000년 6,7,8,9,10월)

주부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주부의 실상, 문제, 주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 중심으로 내

용을 구성하여 다음의 6개 소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공되었다<sup>3)</sup>.

- 이 땅에서 주부로 산다는 것은
- 가정은 휴식의 장소?
- 주부는 가족이기주의의 주범?
- 주부 : 현모양처, 신 현모양처?
- 함께 만나기, 일하기 그리고 힘 모으기
- 주부들의 의식이 사회주부로 바뀌어야

② 가사노동론 (2000년 10월 - 12월 예정)

'주부론'에 이어 시작되는 사이버강의는 '가사노동론'이다. 가사노동, 즉 집안일이란 주부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여성들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결혼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이다. 가사노동은 여성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집안일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을 떠받쳐주는 집안일은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모습 또한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우리네 생활이 과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지, 더 편리하게 해주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변화가 여성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함께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강의 '가사노동론'은 다음과 같은 소주제로 구성된다.

- 집안일의 전담자인 주부, 과연 무엇을 느끼며 사는가?
- 주부가 하는 집안일,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 여성의 취업은 날로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집안일은 누구의 몫인가?
-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진 세상, 과연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③ 예정강의 : 가정생활설계론, 생활시간과 여가론, 가계재무관리론, 가정생활문화. (2001년도)

---

3) 사이버강의에 대한 방문객의 감상을 소개해 본다. 다른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사이버 강의....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가족관계나 아이 기르기 등에 대하여 강의식으로 올린 글들은 볼 수 있지만 주부 자체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요. 신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기대해도 될까요.

(3) 사이버생활상담

본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호응이 큰 메뉴 중 하나인 사이버생활상담은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분야는 가정생활 관련 법률/의료, 육아/자녀교육, 가족관계, 소비생활, 가사노동, 생활설계, 일반적인 가정생활문제이다. 사이버생활상담 메뉴의 운영직은 각 분야의 전문상담위원(대학교수 및 강사, 연구원, 전문직종사자 및 실무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응답하여 준다는 것이며, 상담요청내용에 따라 전문위원들과의 협의 하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기도 한다.

7가지 상담분야에서의 상담건수, 상담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상담분야에서의 상담건수와 내용

	상담 건수	자문위원	상담내용
법률/의료	42	변호사/의사	부부의 성, 자녀의 성, 자녀의 발달, 가족응급처치, 심리적 불안감 주택계약, 공동명의, 이혼 관련 법률절차, 소비자문제 때의 법적 권리, 혼전관계에서의 권리, 남편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가족관계	26	교수 전문상담가 연구자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 친정부모와의 관계 등의 영역에서 부적응과 갈등, 의사소통의 문제, 양부모 자녀 간 문제, 남편의 나쁜 습관, 성관계에서의 부적응, 남편의 외도, 남편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의존성, 남편의 책임감 없음
일반적인 가정생활	19	주부 전공분야교수 연구자	남편의 거짓말/남편과의 성격차이/남편의 외도나 낭비벽 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전반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며느리와의 불화,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 전업주부의 갈등
자녀양육/ 교육	17	교수 아동시설장 연구자	학령 전기 자녀의 양육/교육, 아이의 친구 사귀기, 예절 교육, 성교육, 생활교육, 좋은 습관 기르기, 외국에서 자녀기르기, 남편과 아이의 좋은 관계, 일정 기간 엄마와 떨어져 지낼 아이의 양육문제, 기타 발달과정에서의 고민
가사노동	4	교수	가사노동 평가, 분담, 표준
생활설계	3	교수 전문주부	노년기 대비, 중년기 생활설계, 이혼 후 생활설계
소비생활	2	교수, 소비자 기관 종사자	주부의 낭비벽, 의류세탁물 사고

2000년 5월 - 10월 현재 총 상담건수 113건.



(4) 생활 속의 이야기

생활 속의 이야기는 주부와 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유롭게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 느낌,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나 소개하고픈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상 뉴스와 문화생활, 이런가족 저런가족, 우리들의 이야기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① 뉴스와 문화생활

가정생활 관련 뉴스와 가족원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문화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부나 여성 대상의 다른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패션, 육아, 상품,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외하고 있다. 주로 신문이나 잡지를 중심으로 대중매체에 올려진 가정생활 관련 정보, 공동체모임, 관련되는 통계, 변화된 가족정책 등이 소개되고 있다. 5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153개의 아이템이 올려졌는데 주된 내용은 <주부정체성에 관련된 기사> <남편의 육아일기> <출산휴가연장이나 주5일 근무제 등의 소식을 담은 뉴스> <호주제폐지> 등 남녀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에 관한 사설> <여성과 가정생활 관련 전시회> <뮤지컬, 콘서트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거나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각종 공연> <기타 생활정보> 등이다.

② 이런 가족 저런 가족

바람직한 대안을 보여주는 다양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간단한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하는 메뉴로서 연구소 측의 취재와 사이트 방문자의 자원에 의해 운영한다. 지금까지 소개된 가족은 다음과 같다.

- ㉠ TV 없이 한 번 살아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5월) - TV 없이 살아가는 부부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 ㉡ 아이를 위한 영혼의 기도 (5월) - 입양을 통해 어렵게 아빠가 된 남성이 아이를 생각하며 지은 기도문 형식의 시를 소개한다.
- ㉢ 주말엔 남편이 부엌을 점령한다! (6월) - 주말에는 남편이 전 부 식사준비를 하고 있는 독특한 가사분담사례를 소개한다.

- ㉔ 인터넷으로 새로운 인생 펼쳐다 (7월) -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주부의 자아가 더욱 넓어지고 부부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가족을 소개한다.
- ㉕ 함께 아이 기르기 (8-9월) - 외국에 살면서 자녀양육을 부부가 함께 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㉖ 며느리를 명절에 친정에 보내는 시부모 (10월) - 새로운 명절 문화의 사례로 명절 때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주는 시부모의 경험, 주위의 시선 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 ③ 우리들의 이야기

이용자들이 가벼운 일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수필형식의 글로 자유롭게 올리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주된 내용의 주제는 <육아일기> <세계의 주부> <부부평등으로 가는 투쟁일기> <40대 주부가 살아가는 이야기> <아내가 불쌍하게 보일 때 - 어느 남편의 시> <여성, 모성, 가부장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엄마와 아들과의 교육전쟁> <생활정치> <오늘은 우리 딸의 어린 이집 종일반 첫날> <내 나이 마흔>등이다.

### (5) 주연(주부문화연구소)생각

본 사이트의 ‘주연’은 주부문화연구소의 줄인 말로, ‘주연’이란 이름을 가진 아줌마를 대표적인 캐릭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연생각은 일정한 주제에 대한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의 견해와 입장을 제시하는 장이다. 현재는 뜨거운 감자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주부들의 다양한 의견, 사회적 합의, 지향성 등을 모아 정리된 연구소의 입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제까지의 주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기유학 (5월) - 정부의 조기유학 자율화 방침을 앞에 두고 조기유학에 사회적 관심이 두어 지는 배경, 그로 인한 문제,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동반자 I, II (5월) - 부부가 서로를 아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대화가 만들어내는 동반자 관계」를 이상적인 관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행복한 동반자, 성공적인 동반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③ 늦둥이 (6월) - 늦둥이가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며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늦둥이의 출산문제는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주연아줌마의 견해를 제시한다.
- ④ 전업주부, 취업주부 (7월) - 같은 주부임에도 생활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서로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서로를 격려해야 할 대상이다. 같은 여성이며, 같은 주부이다. 그래서 함께 해 나아갈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 ⑤ 취업주부의 아이 키우기 (8-9월) - 취업주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취업주부의 아이 키우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주부 자신이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이기고 죄의식이나 분리 불안(어머니의!), 우울증을 덜 느껴야 더 만족스럽고 유능한 자녀양육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전체의 지원과 사회의 우호적인 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⑥ 정보사회의 여성 (9월-) - '정보리터러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다' 라는 주제로, 정보의 자원적 가치에 맞는 일을 통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추구하는 질적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의 정보화는 여성 자신들은 물론이고, 부모 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구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정보의 가속화에 따라 모든 사람은 정보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활용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6) 동아리방

본 사이트를 이용하는 주부들의 요청에 따라 세부적인 공통관심사를 주제로 소그룹이 함께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동아리방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주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때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주제어와 함께 동아리방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 ① 앞마당 - 21세기주부문화연구소 웹회원 홈페이지.
- ② 차한잔 - 왕 수다방.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으며, 회원이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다.
- ③ 한잔더 - 동아리 신청,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 개설하고 싶은 동아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예정인 동아리방의 제목은 <가정살림 대충하기 방> <주말부부의 방> <취업한 아내를 둔 남편들의 방> <시부모와 함께 사는 주부들의 방> <커플 중심의 결혼문화 만들어가기 방>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주부들의 방> <외동이를 둔 부모들의 방> 이다.

### (7) 자료실

자료실에는 본 연구소의 연구원과 운영위원들이 각 대중매체에 기고한 글, 강연원고, 연구소 홍보와 관련된 신문기사, 패널토론회와 심포지움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 3. 활동평가와 전망

이제까지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자들이 학문의 실천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서의 extension service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의 활동과 홈페이지 운영사례를 소개하였다. 활동과 운영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경험한 바를 토대로 평가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의 활동

지금까지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의 활동은 패널토론회의 개최와 학술심포지움개최 및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대중매체 기고 및 강연으로 나눌 수 있다. 패널토론회를 정례화하여 연구자 집단과 주부집단과의 대화통로를 마련하고 있고, 학술심포지움을 통해 주부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자집단의 연구의욕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의 대중사업으로는 홈페이지운영과 매체를 통하여 on-line과 off-line상에서 주부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소의 경우 on-line과 off-line의 연계가 주요한 특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예로 홈페이지의 사이버강의에서 <주부론>을 통해 이 땅

에서 주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제공한 바, 이에 대한 주부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제 1회 주부패널토론회의 주제를 <이 땅에서 주부로 산다는 것은>으로 결정하여 진행시켰다. 또한 홈페이지의 한 메뉴인 주연생각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다루었는데, 이에 대한 주부들의 의견을 통하여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의 갈등과 오해를 알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제 2회 주부패널토론회는 <전업주부 취업주부 서로 알기, 함께 힘 모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사이버생활상담에서 의외로 법률이나 의료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이 많다는 경험에 기초하여 향후 지역사회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할 때는 법률 자문위원들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에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주부패널토론회나 주부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연구소의 활동방안이 결정되고 변경되기도 하는 역동성도 높ی 평가할 수 있다. 주부들의 요구는 주부문화를 연구하는 본 연구소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소의 활동은 소속 개별 연구자들의 자원과 통찰력,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체계적 수렴단위가 되며, 공동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2) 홈페이지 운영의 이점과 과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연구자들이 경험한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생활의 문제가 무엇이며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의 실태파악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주부나 가족구성원을 샘플링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정해진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그 동안의 연구방법과 더불어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주부 및 그 가족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실제모습들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생활상담에서 주로 부딪치게 되는 가족들의 고민, 문제거리, 관심거리 그리고 각 메뉴마다 등장하는 전형적인 생활경험과 인식 등은 그 자체로 생생한 가정생활 관련 정보가 될 수 있다.

둘째, on line과 off line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통한 on line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대화로, 상아탑에서 관조적인 연구에 머물지 않고 변화와 그에 따른 요구를 수용하는 반응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나들며 포괄적인 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은 우리 연구자들이 무엇을 연구하여야 하는가의 정보가 되며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유용성을 갖고 있다.

넷째, 연구대상이 되는 가정생활에 그 동안의 축적된 연구결과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금까지 가정자원관리학은 특정한 진출분야나 훈련기관이 없어 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는 지적도 있는데(정영금, 1999), 결국 우리의 연구결과가 적용되어야 하는 현장은 가정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 사이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장인 가정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송혜림, 2000). 따라서 사이버강의나 사이버생활상담 등을 통하여 그 동안의 연구내용과 관점, 결과들을 가정생활에 제공하며 문제해결과 질적인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종합컨대, 홈페이지 운영은 실제 가정생활의 주체와 연구자가 쌍방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연구자들은 가정구성원들의 요구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I. 결론 : 향후과제

21세기주부문화연구소가 21세기의 다양한 한국주부문화를 해석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extension service를 충실히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향후과제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보면 연구활동과 대중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1) 대중 사업의 활성화

먼저 대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홈페이지 운영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로서 무급의 봉사정신에 기댄 상담의 속성상 24시간이내에 상담을 신속히 하기 어려운 점, 또는 동아리활동에 대한 요구를 현재 개발 중이라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개설

중인 동아리방을 활성화함으로써 같은 경험과 문제를 고민하는 주부 자신들이 서로간의 생각이나 의견교환을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방향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가도록 하며, 연구소는 이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on-line 상에서 결성된 동아리방의 회원들이 현실의 장에서 만나 문제해결을 위해, 또는 새로운 가정생활 문화와 주부문화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 역시 연구소의 대중적 사업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 메뉴들의 내용을 보다 더 알차게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질과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부 재교육바람의 방향을 선도하고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강사들의 발굴 및 교육내용의 개발에 주력한다. 여성발전센터와 같은 주부들과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기관 또는 주부대상행사, 각 대학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운영하는 주부대학, 기타 비영리적인 단체와 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 연구소가 지향하는 주부상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한다.

## 2) 연구활동의 강화

학술적인 연구업적을 통해 다양한 주부문화를 소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주부의 삶에 대한 해석과 대안의 소개뿐 아니라, 단체적인 차원에서 주부들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이를테면 건국 이후 각종 주부단체활동에 대한 평가로부터 2000년대 들어 더욱 주목받는 새로운 주부단체들 - 그리고 주부대상의 각종 상업적 문화행사와 주부대상 인터넷 사이트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다. 그러한 평가에는 주부들의 단체적인 활동이 주부문제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가 또는 국가를 비롯한 사회의 다른 분야로부터 착취되거나 또는 대상화되는 방식이 포함된다. 물론 국가의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이 주부들의 삶에 미친 영향들 그리고 다른 나라 주부들의 문화 및 주부운동 등에 대한 연구들도 포함된다. 현재 연구소에서 수행중인 번역활동과 논문, 그리고 서적의 저술활동 형식이 그러한 연구들을 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논문과 서적의 발간뿐 아니라 연구결과들을 풀어 담은 대중적인 서적

들을 통해 주부들이 가정의 경영자로서 남녀평등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에 어떤 관리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어떤 관리기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서도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혜령·조영희(2000). 21세기 주부문화연구소를 통한 가정자원관리학 연구의 현장실천성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7차 총회 및 학술대회 <지역사회에서 가정관리학 분야의 현장실천>. 14-33.
- 박명희(1999). 가정관리분야 연구! 과연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6차 학술대회 '실천학문으로서 가정관리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1-13.
- 송혜림(2000). 주부 대상 인터넷 사이트 운영의 실제. 한국가정과학회 2000년도 학술대회 <인터넷과 가정생활> : 87-97.
- 정영금(1999). 가족자원관리학, 누구를 위한 학문이었나?.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6차 학술대회 <실천학문으로서 가정관리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야 평가> : 80-93.
- v.Schweitzer(1999).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대학 주최 여성정책전문가 초청강연 자료집.